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 종 화

엇갈린 박자

필자는 바흐의 음악을 아주 사랑한다. 그 많은 곡 중에서도 '푸가' 기법으로 만든 작품을 특히 사랑한다. 푸가란 서양음악의 음악구조 중 하나로 두개 이상의 성부로 구성됐다.

첫 주제(subject)는 다른 성부에서 다른 음조로 모방되면서 전개된다. 3성부 푸가에서는 주제가 세번 모방되고, 4성부 푸가에서는 네번 모방된다.곡은 대위법에 따라 발전되며, 주제는 다양하게 변형된 모습으로 되돌아오고 사라진다.

주제의 반만 돌아올수도 있고, 주제의 조각들만 계속해서 발전할 수도 있다. 아예 주제가 도치(inversion)되어 다른 요소들과 어울리는 경우도 있다.

푸가를 처음부터 유심히 들어보면 이 주제들이 반복되면서 일종의 사이클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사이클 안에서는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은 형태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엇갈린 박자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수많은 일들. 그러나 우리에게 인상 깊게 남는 기억들은 삶에서의 엇갈린 박자들이 만들어준 선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 중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어 골목을 돌자 너무나도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해변에서 파도를 피하려 뒷걸음질 치다 누구와 부딪쳐 첫눈에 반했을 때, 새벽에 집으로 걸어가는 도중 교회에서 감명 깊은 종소리가 침묵을 깨며 울려퍼질 때, 우는 아기를 안았는데 조용해졌을 때.

이런 순간들은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를 더 뚜렷하게 들리게 해주며, 우리가 아름다운 세상에서 숨 쉬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해준다. 그러나 도시생활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침묵과 어둠의 기억마저 잊어버린 우리는 이 순간을 잘 잡아내지 못한다.

기대와 욕망. 어쩌면 이것들이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 욕망을 품은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기대를 품게 되고, 높은 기대는 인간이 계획을 세우게 만들며, 계획은 인간을 희열 또는 절망의 양쪽 길 중 하나로 인도한다.

여기서 희열을 얻게 됐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으로 원했던 것인지 의문을 품게 만든다. 만약 절망에 빠졌다 하더라도 인간은 좌절이나 분노 속에서 엉뚱한 행동을 하고 만다. 그리고 이 엉뚱한 춤은 멈출 줄 모른다. 끊긴 줄 모르는 소리와 빛들 안의 기대와 욕망.

바흐의 푸가들은 으뜸화음에서 시작해 으뜸화음으로 끝난다. 그리고 그 사이의 리듬과 화음들이 선을 긋고, 색깔을 칠하며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낸다. 주제들이 매번 다르게 발전해야 된다는 규칙 아래 리듬과 화음들은 다양한 색채로 변하면서 듣는 이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것이 똑같은 푸가를 매일 들어도 항상 다르게 들리는 이유다. 어떤 날은 평소에 잘 안 들리던 리듬이 부각돼 들리고, 어떤 날은 화음이 들리기 시작하며, 어떤 날은 기억했던 리듬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기도 한다.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어냈지만 혼돈은 여전히 그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혼돈이 신만이 즐길 수 있는 자유라면 바흐의 음악이야 말로 신에게 바쳐진 음악이다.

푸가는 듣는 이의 감각이 깨어있을수록 더 흥미로워진다. 더 많은 것들이 들리면서 질서 속에 숨은 혼돈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혼돈에서 질서를 찾으려 노력하지만 질서 안의 혼돈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삶의 엇갈린 리듬들은 바로 이 혼돈들이다. 이를 즐길수 있게 됐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살아있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현재 생존하는 작곡가 중 최고라고 생각하는 피에르 불레즈에게 필자는 이 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선생님은 작곡하실 때 음악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혼돈에서 질서를 찾으려 하며 또 질서 안에서 혼돈을 찾으려 하지. 그리고 그런 음악들을 좋아한다네."

바흐도 자신의 음악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인간들이여, 깨어나라. 너희들도 신이 될 수 있다." 〈서울대 교수·피아니스트〉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사랑 칼럼

상해임시정부의 대일선전포고와 애국의 길

신 흥 수

봄기운에 취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의 끝자락에 와 있다. 올해 한해 다 이루지 못한 일에 대한 아쉬움과 더불어 목덜미를 파고드는 쌀랑한 기운이 나를 움츠러들게 만들지만, 그래도 12월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서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기억하고 싶은 날이 있다.

12월 10일은 1941년 이후 올해로 71번째 맞이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일이다.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향한 기개와 저력을 만방에 천명했던 날이다. 또한 항일 투쟁의 구심점이었던 임시정부가 진주만을 습격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에 대해 응징을 선언하여 연합국의 일원으로서 존재감을 알리는 계기도 되었다.

상해임시정부는 고종이 서거하고 3·1운동이 일어난 직후, 항일 독립 운동가들이 상해에서 구국의 뜻을 모아 1919년 4월 11일에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교통국, 연통제 조직을 만들고 독립신문을 발행하며 외교활동을 하는 등 정부 역할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임시정부는 재정문제와 노선문제를 노출하면서 내분에 휩싸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는 흐트러진 항일운동 진영을 재규합하고 광복의 불씨를 새롭게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제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빼앗긴 나라에서 일제의 마지막 발악을 견디기는 참으로 힘들었으리라. 하물며 이국 타향에서 독립 운동가들의 삶이야 오죽하였겠는가? 나라를 되찾겠다는 애국애족의 의기 하나로 고향과 가족을 등지고 나섰지만 독립운동가들을 막아선 추위와 배고픔은 일제와 싸우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상해임시정부의 대일 선전포고일에 즈음하여 호국영령들의 애국애족의 삶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째,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호국영령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2012년 현재 대한민국은 무역과 수출에서 세계 10강을 달성하고, 반도체, 조선, 가전, 스마트폰, 철강 등에서 세계 일류를 달리며, 스케이팅에서의 김연아나 강남스타일의 싸이처럼 세계적인 문화 및 팝 아이콘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발전도 호국 영령들의 뜨거운 눈물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되었음을 분명하게 인식하자.

둘째,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자. 공동 운명체 의식을 바탕으로, 조국과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의 일로 여기고 분연히 나설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다. 조국의 광복이 길고 먼 훗날의 기약이 될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도 조국을 위해 자신을 불살랐던 독립운동가들의 주인정신을 기억하자.

셋째, 과거의 역사로부터 배우고 그 교훈을 잊지 말자. E.H. Carr는 '과거의 역사는 미래를 비추어주는 빛이요, 미래에 대한 염원이 과거에 대한 통찰을 날카롭게 한다'고 했다. 나라를 빼앗긴 기억과 광복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들을 반추해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교훈을 찾도록 부단히 노력하자. 과거의 굴종의 역사를 되돌아보아 자주와 자결의 의지를 드높이고, 분열의 요소들을 발전적으로 승화시켜나간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가를 위한 희생을 범사회적으로 추념하고 존중하는 전통을 세워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성숙되고 국민의 인식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훈위상을 강화함으로써 한층 더 높은 수준의 보훈정책이 펼쳐지리라 믿는다.

이제 필자는 자랑스러운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민족정기 함양에 앞장서서 글로벌 시대의 대한민국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학) 만대학원 이사장〉

의료 칼럼

유방 통증, 유방암이 보내는 적신호 인가?

박 은 규

유방통은 많은 수의 중년 여성들이 겪는 말 못할 고민이다. 실제로 유방과 관련해 외래 진료를 받는 여성이 가장 흔하게 호소하는 증상이기도 하다. 유방통의 정도와 양상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관심사는 혹시 이러한 증상이 유방암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밝히자면 유방암의 유일한 증상으로 유방통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의 약 5% 정도일 뿐이다. 즉 유방암 이외의 원인으로 생긴 통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예전에는 유방통이 공격적이고 예민하고 성급한 여자들에게서 잘 생기는 정신 신경 증세라고 간주됐으나, 최근에는 신체 내의 여성 호르몬 변화에 따른 유방조직의 과민반응으로 이해되고 있다.

유방통이 있을 때 유방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민하기보다는 의료기관에서 유방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받는 것이 유방통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가 된다. 실제로 유방 통증이 유방암에 의해 생긴 증상이 아니라는 의사의 확인을 받은 후에는 대부분 증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유방통은 월경주기에 따라 나타나는 주기적인 유방통과 비주기적인 유방통으로 나뉜다. 주기적인 유방통은 유방의 무거운 느낌, 충만감 또는 압통 등 여러 정도의 불편감이 월경이 시작되기 수일전부터 발생해 월경이 끝나면서 소실되는 현상으로 대부분 정상적 체내 호르몬의 생리적 변화가 원인이다. 실제로 유방의 질병과 관련된 경우는 비주기적 유방통이 대부분이며, 이는 월경주기와 무관하게 발생한 통증으로 주기적 유방통에 비해 통증의 기간이 짧지만 지속적이며 통증부위는 비교적 명확하게 지적할 수 있을 정도로 분명하게 나타난다. 비주기적 유방통의 경우 정상적 호르몬 변화보다는 해부학적 원인으로 통증을 유발시키는 경우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병적인 원인이 없는 유방통은 대부분 여성호르몬계의 교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의 연구들에 의하면 조절되지 않는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으며 카페인 함유 식음료, 담배, 과도한 동물성 지방(포화지방산)들도 원인이 될 수 있다. 치료 목적으로 복용중인 약물에 의한 영향도 살펴 보아야 한다.

피임약, 폐경 여성의 호르몬 대체 요법 등에 사용되는 호르몬 관련제제, 우울증 약제, 특정한 고혈압 치료제나 천식 치료제, 위 궤양 치료제, 한약 등도 유방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방통의 80~90%는 심리적인 안정을 위한 노력만으로도 특별한 치료가 필요없이 호전되고, 나머지 10% 정도만이 치료를 필요로 한다. 유방통의 정도가 심하거나 장기간 지속될 경우 통증 그 자체만으로도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소염진통제나 달맞이꽃 종자유 성분, 여성호르몬 억제 관련 약물 등이 통증 조절 약제로 사용되고 있다.

유방통증은 남성은 짐작할 수 없는, 여성만이 겪는 고통이다. 하지만 직장과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은 남성들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여성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 유방통이 여성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말이다.

유방통을 유방암이 보내는 적신호뿐 아니라 오히려 직장, 가정에서의 인간 관계 그리고 생활 습관이 보내는 적신호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계로병원 외과 원장〉

1㎞ 정도는 차량 대신 도보로…녹색 실천 생활화하자

올해 볼라벤, 덴빈, 산바란 태풍 3개가 연이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피해액은 1조원에 달한다. 기상청의 일기도를 보며 우측으로 진로방향을 확 바꿔 늘 지나가던 대로 우리나라를 비켜 갔으면 하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모든 게 허사이고 우리에게 피해만 남겼다.

태풍에너지는 나가사키 원폭의 1만 배라 한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면 세기는 더 증가하게 될 것 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견해이다. 태풍이 오면 필연적으로 재산상·정신상의 피해를 주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

자연환경을 생활환경의 편리를 추구한 나머지 자연에 거슬리는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자. 온실가스 배출량은 승용차가 버스의 약 7배, 철도의 약 5배에 달한다니 대중교통이용을 생활화해야 할 것이다. 아스팔트, 시멘트 포장으로 우수는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그것에 반사된 여름철 반사열은 어떤가 창문을 열어 놓지 못할 지경이고 냉방기만 더 가동하게 된다.

한여름 무더위에 블랙아웃이 될 정도로 과다한 전기를 사용하고 말았다.

그린란드 빙하가 하루 19미터씩 떨어져 나가고, 온도는 24.5도까지 치솟는 등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풍요롭고 편리함 속에서 살았으나, 이제는 뒤를 돌아보면서 더 단순하고 더 자연적인 방식들을 재발견해야 한다. 우리 스스로 생활 습관을 바꿔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 실천을 생활화하여 지구온난화를 늦춰가 보자.

아파트보다는 목조주택, 승용차보다는 자전거이용, 차도보다는 안전한 보도조성, 차량이용보다는 1킬로 미터 정도는 도보로 생활해보자. 개인으로서는 근검절약하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환경을 깨끗이 하자 이런 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피해액의 10%를 유공자에게 시상하고 녹색실천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

그리하여 우리 후손에게는 4폭(폭염·폭풍·폭우·폭설)없는 환경을 물려주자. 우리에게는 이러한 책무가 있지 아니한가.

▲김미형·광주시 서구 화정동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사 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게 주어진 과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선출됐다. 박 후보의 당선은 재집권이기도 하지만 첫 여성 대통령을 선택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당선자에게는 축하를, 낙선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보낸다.

지금 우리들이 처한 국내외적 현실은 하나같이 버겁기만 하다. 대북관계 및 국제정세 변화, 국제경제 위기에 따른 우리 경제 침체, 성장 둔화와 경기 위축, 계층·이념·지역간의 반목 등 헤쳐나가야 할 국가적 현안들이 난마처럼 얽혀 있다. 박근혜 당선자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 한다. 소득 양극화로 고통받는 서민·중산층을 살리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 양극화 해소, 가계부채 등의 해법도 찾아야 한다.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로켓 발사와 남북관계 개선, 한미동맹의 강화와 한중, 한일관계 개선 등도 시급한 사안이다. 또한, 국민대통합과 지역균형발전, 지역간 화합 등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민적 욕구이자 '안철수 현상'으로 대변되는 정치 쇄신과 선진화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우리 정치가 구태를 벗지 못하고, '후진 기어'를 넣는 퇴행은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지역적으로, 호남에 대한 차별은 과거의 잔재로 남아야 한다. 지난 5년간 이명박 정권에 당한 소외와 홀대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박근혜 당선자가 지난 5일 광주·전남지역 유세에서 "호남의 상처와 눈물을 짊어지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한 말을 주목한다.

특히, 선거 막판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전이 유난히 기승을 부린 점을 감안하면 정치적·지역적·이념적 갈등과 대립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자는 이러한 후유증을 조기에 차단, 국력 결집에 힘써야 한다.

다시금,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해 확인한 국민의 여망을 대통령 당선자를 비롯한 정치권 모두가 깊이 새겨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거기엔 국민대통합의 지도력을 통한 관용과 화합으로 나타나야 하며, 지역간·계층간 소통과 공평무사한 인사정책을 통해 실천돼야 한다. 역대 정권의 실패가 소통 부재와 편향된 인사 때문이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골칫거리' 해양쓰레기 처리대책 시급하다

양식장이 밀집된 전남지역이 해양쓰레기 처리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연간 수만t씩 해양쓰레기가 발생하고, 중국 등 외국에서 밀려오는 쓰레기 양도 수천t에 달하지만 수거는 절반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발전연구원 김동주 선임연구위원은 도내에서 발생하는 해양쓰레기는 연간 3만8000여t으로, 전국 15만9800여t의 23.8%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폐어구, 로프 등 어업 과정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3만t, 태풍 등에 따라 강과 하천을 통해 유입된 육상쓰레기는 8000t 정도라고 한다.

이 가운데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쓰레기는 전체 6.7%인 2600여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수거량은 발생량의 53.6%인 2만356t에 그쳐 절반 가량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처리비 재원 확보, 해양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모니터링 및 관리대책 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해양쓰레기 처리 예산이 12억 원에 불과한데다 처리 전용선박 및 처리장도 크게 부족하다는 데 있다.

해양쓰레기는 환경오염이 가중되면서 날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대로 방치하다간 천혜의 전남 해안이 쓰레기로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전남도, 일선 지자체는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쓰레기 수거 전용선박 운영과 종합처리장 확충,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확대 등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내각 드림팀

지난 여름 런던올림픽이 열리기 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92년의 미국 농구대표팀이 올해 미국 농구대표팀과 겨룰 경우 92년 대표팀이 승리할 것"이라고 단언해 스포츠 팬들 사이에 화제가 됐었다.

미국 스포츠언론 ESPN과의 인터뷰에서 "92년 드림팀과 이번 대표팀이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나"라는 질문에 "당연히 92년 드림팀이 이길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이야기는 당시 미 프로농구(NBA)계에서 논란이 됐었다. 그만큼 지난 92년 미국의 농구 드림팀은 세계 최강의 대표팀이었다. 마이클 조던, 드렉슬러, 매직 존슨, 존 스탁턴, 래리 버드, 찰스 바클리, 칼 말론, 데이빗 로빈슨, 패트릭 유잉 등은 바르셀로나에서 6전 전승과 평균 43점차 이상의 압도적인 스코어차로 금메달을 따냈다. 이들 멤버 11명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정도로 레전드로 남아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지금 우리 나라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과 계층간의 갈등, 사회적 통합 문제 등 현안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러한 난제들을 풀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의지와 개각에서의 인사다.

최근 극작가 신봉승씨가 '세종,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왕조실록을 뒤져 한국 행정부의 드림팀을 구성해 놓았다. 신봉승씨가 꾸려놓은 인선이 더욱 주목을 끈다.

국무총리에 선조-광해군-인조에 이르는 3명의 왕 밑에서 영의정을 지낸 오리(梧里) 이원익, 기획재정부 장관에 퇴계(退溪) 이황, 문화체육부 장관에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이었던 연암(蓮巖) 박지원, 지식경제부 장관에 다산 정약용, 최근 물의를 일으켜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검찰총장에는 정암(靜庵) 조광조가 선발됐다.

대통령 당선자가 이러한 드림팀으로 내각을 구성한다면 현재 처한 국내외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행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야말로 제대로 된 '내각 꾸리기'를 당부한다.

/최재호 경제부장 l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